“먹·종이 준비하라” 당부, 불사로 꽃피우다

하얀연꽃절, 4월 25일 경내서
‘경봉대선사기념관’ 착공식 열어
원산 스님 “수행 서원 현실로”
3년 3개월 준비…신행 · 문화공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연제구 하얀연꽃절이 4월 25일 경내에서 ‘경봉대선사 기념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내빈들이 기념 컷팅식을 하고 있는 모습.

“너는 향후 큰 불사를 하게 될 것이니, 먹과 종이를 준비해서 오너라.”

경봉 스님의 한마디 당부는 한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고, 불사(佛事)의 씨앗이 됐다.

부산 연제구 하얀연꽃절(주지 현중 스님)은 4월 25일 경내에서 ‘경봉대선사기념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착공식은 경봉 대선사의 뜻을 기리는 동시에, 하얀연꽃절 회주 원산 스님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원력을 실현하는 자리였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의 말씀을 수행자로서 감당해야 할 한 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정성껏 먹을 갈고 새벽마다 지묵을 펴 스승의 휘호를 돕는 일상을 이어갔다. 그렇게 쌓인 경봉 스님의 친필 경구와 휘호는 100여 점에 이르렀다. 이 휘호는 오늘날 기념관 건립의 토대가 되었고, ‘경봉대선사기념관’의 주요 전시자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전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하얀연꽃절 회주 원산 스님(전 통도사 주지)을 비롯해 경봉문도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전 통도사 유나 천진 스님, 전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이정걸 하얀연꽃절 신도회장,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 안재권 부산시의회 의원, 권종헌 연제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원만 불사를 기원했다.

원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 도량은 단지 흙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수행과 서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하얀연꽃절이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이 품어줄 자비의 도량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와 정진의 향이 끊이지 않고, 자비의 손길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불사를 향한 뜻을 꺾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원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얀연꽃절이 부산을 대표하는 치유와 안식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통도사 사부대중 또한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주지 현중 스님은 “수행자의 한길을 걸으며 꿈과 고행의 시간을 지나온 모든 인연이 오늘 불사를 가능하게 했다”며 “사부대중 앞에서 이 불사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삼배와 함께 올린다”고 말했다.

기념관은 대지 6510㎡(1,970평), 연면적 4081㎡(1,235평) 규모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총 4개 동으로 구성되며 종무소, 대법당, 지장전, 경봉대선사 기념관, 시민 선방, 갤러리, 요사채 등이 들어선다.

이번 불사는 2021년 1월 계획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이날 첫 삽을 뜨기까지 약 3년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다.

BBS 특집 다큐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 5부작 공개

5월 4일 1부 선공개로 시작
화 · 목 · 토요일 순차적으로 방송
운부암 집중수행 현장 담아내

생각을 넘어, 나를 마주하는 시간. 삶을 깨우는 한국인의 수행법이 안방으로 찾아온다. BBS불교방송이 간화선의 깊은 울림을 담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을 초대한다.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을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5월 4일 오후 7시 30분 1부 선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목요일 오전 7시 50분, 토요일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방송된다.

다큐멘터리 1부 ‘생각을 끊는 칼 – 화두’는 화두 참구를 통한 자기 탐구와 수행의 첫 관문을 조명한다. 이어 2부 ‘길 안내자 – 선지식’, 3부 ‘깨달음의 시작, 체험’, 4부 ‘세계로 나아가다’, 5부 ‘수행, 일상이 되다’로 이어지며 간화선 수행의 단계적 여정을 보여준다. 각 회차는 동일 내용을 요일별로 반복 편성해 시청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은 한국불교 수행의 정수인 간화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종교적 차원을 넘어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수행’, ‘행복한 삶을 위한 길’로서 간화선을 소개하며,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근한 구성으로 다가간다. 특히 팔공산 은해사 운부암에서 진행된 간화선 집중수행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법사 수불 스님과 수행 참가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았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화선 수행 현장도 함께 소개돼 국경을 넘어 세계 일상 속으로 확장되는 간화선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내레이션은 배우 이승기가 맡아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따뜻한 목소리로 시청자와 소통한다.



BBS불교방송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을 5월 4일부터 방영한다.

BBS불교방송 관계자는 “간화선은 단순한 종교 수행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 여정”이라며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현대인들에게 치열한 자기 탐구와 진정한 행복의 가능성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관음사, 수행 기쁨 누릴 ‘법희선열당’ 낙성

4월 26일 경내서 낙성식 봉행
지계염불만일기도 3800일 회향도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가 법희선열당 불사를 회향하고 수행과 귀의의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사진〉

관음사는 4월 26일 경내에서 ‘관음사 법희선열당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 송광사 전 율원장 도일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 백승환 신도회장,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등 지역 내빈과 신도들이 참석해 원만한 불사 회향을 함께 축하했다.

법희선열당은 ‘법을 배우는 기쁨’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간을 지향한다. 1층은 영구 위패를 봉안하는 법당인 ‘자효전’, 2층은 대중 요사채, 3층은 공양간과 추가 요사채로 구성돼 수행자와 신도들의 실질적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한다.

이 불사는 2023년 3월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5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 2월 8일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12월 17일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 3월 20일에 ‘법희선열당’ 현판을 봉안하며 외형과 명칭을 모두 갖추게 됐다.



회주 지현 스님은 낙성식 법문에서 “법희선열당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기쁨을 얻는 공간”이라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관음사의 가람 불사가 하나하나 이뤄졌고, 이 지역 신도들의 귀의처와 수행처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덕분에 이곳이 존재 이유가 있으며, 법희선열당 또한 여러분 모두의 동참과 가족 같은 인연 속에서 완성된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삼배로 전했다.

이날은 관음사가 진행해 온 지계염불만일기도의 3800일 회향이 겹쳐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지현 스님은 “3800일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처님이 늘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수행의 공덕을 신도들에게 모두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 기원제 봉행

문화재단, ‘조선통신사축제’ 일환
261년만 최장 거리 항해 재현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 기원제’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조선통신사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범어사는 올해 3월 부산문화재단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조선통신사선 항해는 1763년 제11차 조선통신사 사행(使行) 이후 261년 만에 오사카까지 이어지는 최장 거리 뱃길을 재현하는 것으로, 선현들의 지혜와 우호의 뜻을 계승하고 한일 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대웅전에서 참가 내빈들은 부처님께 향을 올리며 한마음으로 조선통신사선의 평화 항해를 기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범어사 박물관을 둘러보며 조선통신사와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나눴다. 이어 남구 용호 별빛공원으로 이동해 출항식에 참여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봉행하게 돼 깊은 기쁨고 감사하다”며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항해가 바다 위 평화사절이 돼 양국 간 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오이시 타카오 일본 시즈오카 부시장은 “아쉽게도 이번 조선통신사선은 육로를 따라 시즈오카까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시즈오카까지 함께한다는 뜻으로 무사 항해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준무산장학재단, 대학생에 3억원 전달

4월 25일 속초시청서 수여식
지역 대학생 245명에게 전달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가 설립한 성준무산장학재단(이사장 지혜 스님)은 4월 2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신흥사 성준무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준무산장학재단은 속초 지역 대학생 245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올해 수여식은 지난해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됐으며,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는 각 200만원, 다자녀 가정의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지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성준 대선사와 무산 대선사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 귀한 인연을 기억해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준무산장학재단은 정호당 성준 대선사와 설악당 무산 대선사의 뜻을 기려 두 스님의 법명을 합쳐 2000년에 설립됐다. 이후 매년 빠짐없이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수혜자 수와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체육인전법단,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4월 30일 진천 선수촌 법당서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30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법당에서 봉축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신도국장 영범 스님, 포교국장 청곡 스님, 중앙종회의원 무경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무진 스님, 체육인전법단 사무국장 정진 스님, 진천선수촌 법당 주지 여암 스님, 체육인전법단 지도법사 혜오 스님을 비롯해 체육인불자연합회 문홍식 회장, 진천선수촌 관계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남전 스님이 대독한 법문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선수들이 선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길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수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한 송기철 우슈 국가대표 선수는 “치열한 훈련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잊지 않고, 정정당당한 경기로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동래경찰경승실, “법 수호” 봉축 법요식

팥빵, 음료수 600인분 전달



부산 동래경찰서경승실(경승실장 자관 스님)이 불기 259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동래경찰서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동래경찰서 경승실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김명상 동래경찰서장, 경찰 불자 등이 함께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자관 스님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발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김명상 동래경찰서장은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경찰서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찰의 사명에도 자비와 평화의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며 경찰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는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래경찰경승실은 빵과 음료수 600인분을 동래경찰서에 전달하며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에 감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문인協, 발달장애인과 봉축시화전

4월 25일~5월 6일, 홍법사 경내



사단법인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가 4월 25일 부산 홍법사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봉축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시화전은 5월 6일까지 홍법사에서 진행되며 문인협회 회원 작품 30편과 라온누리 소속 발달장애인 작품 30편이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심산 스님,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과 문인협회 회원, 이석래 부산문인협회전임이사장, 문다영 라온누리 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시와 그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정연 이사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인협회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힘 모아 준비한 오늘 이 시화전은 매우 뜻깊고 감명 깊은 행사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